

달아오른 광주 아파트 분양시장

제일풍경채·수완 숲안에 전본주택 주말 구름관중 대규모 단지 아파트 오래돼 '새집' 실수요자 급증

광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하반기에도 들쭉거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 금리인하로 갈 곳 잃은 '푹푹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상무지구와 풍암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의 아파트가 준공 20년을 맞으면서 '새집'을 찾는 실수요자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 문을 연 '봉선동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은 개관 전부터 방문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일찌감치 줄을 선 사람들은 문을 열자 상당수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마저 벌일 정도였다.

첫날 방문객만 7000여명. 기준층 기준 3.3㎡당 분양가격이 1000만원을 넘겨 '고

분양가' 논란마저 있었지만 주말 사흘 동안 2만 여명이 방문해 복새통을 이뤘다. 봉선동 최초의 4베어로 설계되는 제일풍경채는 봉선동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리는 옛 남구청 부지에 전용면적 84㎡, 총 400가구를 짓는다.

분양 관계자는 "학구열이 높은 부모에게 최적의 입지라는 점과 가전만 구비하면 될 정도로 인테리어에 신경 쓴 점이 호응을 이끌어낸 것 같다"며 "청약이 실시되면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7일 개관한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의 '수완 숲안에 2차' 견본주택 역시 서류접수를 위해 줄을 선 사람들로 인근거리가

크게 북적였다. 길거리에 텐트까지 쳐가며 줄을 선 대기자도 있었다. 숲안에 2차는 전용면적 84㎡ 76가구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으로, 기준층 기준 3.3㎡당 767만원에 분양한다.

풍영정전을 바로 앞에 두고,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 및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게 장점이다. 이처럼 광주의 분양시장이 잇따라 '히트'를 기록하는 데는 지역적인 특수성이 기인한다.

광주는 2000년대 중반 5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으면서 수년 동안 아파트 공급이 뜸 끊겼다. 그 사이 상무지구와 풍암지구, 금호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의 아파트는 준공 15~20년을 넘겼다.

2010년 들어 새 아파트 공급이 다시 재개되며 4베어 및 환경친화적으로 설계된 아파트가 등장했고, 이에 따른 '새집' 실수요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제일풍경채의 경우, 수 년만에 봉선동 한 가운데에 등장한 새 아파트라는 점에서 인근 고급 아파트 거주민 상당수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매제한이 거의 없는 광주의 아파트 시장에서 청약이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묻지마 투자'도 성행하고 있다.

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광주의 아파트 분양 시장은 실수요 60%, 투자수요 40%로 볼 수 있는데, 집을 가지려는 사람과 집으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분양 시장에 몰리다 보니 '청약불패'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며 "봉선동 제일풍경채의 경우 청약도 안된 시점에서 프리미엄이 2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게 그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28일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수완 숲안에 2차' 견본주택 입구에 서류 접수를 위한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슬금슬금 오르는 광주 아파트 분양가

상반기보다 하반기 3.3㎡당 27만원 더 비싸

올해 광주에 분양된 새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점점 오르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사랑방(homesrb.co.kr)에 따르면 올해 1~8월 광주에서 신규 분양한 민간아파트 11개 단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하반기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상반기보다 3.3㎡당 27만원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분양한 6개 단지의 기준층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평균 분양가가 728만원이었으나 하반기 분양한 5개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755만원으로 오른 것.

상반기 공급된 민간아파트 중 5월 동구 학동에서 분양한 무등산 아이파크는 유

일하게 분양가 800만원을 넘어섰다.

무등산 아이파크는 3.3㎡당 평균 841만원으로 올 8월까지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무등산 아이파크 외에는 600만원 중·후반에서 700만원 초·중반대로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를 보였다.

지난 2월 올해 가장 먼저 분양한 북구 두암동 무등산아이스트리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694만원이었으며 3월 공급된

동구 월남동 호반베르디움은 기준층 기준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3.3㎡당 668만원으로 무등산 이스트리보다 더 저렴했다.

이외에도 북구 중흥동 영무에다음은 723만원, 광산구 신창동 대광로제미당은 745만원이었다.

반면 하반기에 공급된 5개 단지 가운데 2곳이 평균 800만원을 넘겼다. 지난달 서구 매월동에서 분양한 아델

리움로제미당은 기준층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3.3㎡당 평균 분양가가 822만원이었다. 앞서 7월 북구 일곡동에 분양한 엘리제 프라이임은 820만원이었다.

또 북구 양산지구 진아리체는 717만원, 광산구 첨단지구 중흥S-클래스 리버시티 754만원 등 700만원 초반대에 분양된 단지는 하반기에 찾지 못했다.

이건우 부동산사랑방 팀장은 "정부가 LTV·DTI 완화와 이어 9·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각종 규제를 풀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장흐름을 볼 때 분양가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대기업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내달 본격화

현대차 9일, 삼성 12일, 효성 18일 인·적성 검사

LG 4일, SK 19일, 금호 25일

기아자동차와 금호아시아나그룹, 효성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다음달부터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인·적성 검사를 시작한다.

28일 채용 업계에 따르면 10월 첫째주 주말부터 한 달 내내 입사의 두 번째 관문인 인·적성 검사가 줄지어 치러진다.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채용 규모가 큰 4대 그룹의 인·적성 검사 날짜는 겹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인·적성 검사를 하는 곳은 LG그룹이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상사, LG유플러스 등은 4일 일로 LG 웨이핏테스트(LG Way Fit Test) 날짜를 잡았다. LG그룹은 이번 하반기부터 LG 웨이핏테스트에 인문역량 영역을 신설, 한국사와 한자 문제를 10개씩 추가했다. LG그룹은 이번 하반기부터 3개 계열사까지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바꿨다. 지원자 역량에 따라 3개 계열사에 모두 합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한글날(9일)에 인·적성 검사를 하는 기업도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하이스코 등 현대자동차그룹이 9일 HMAT을 본다. 다만, 이날 HMAT은 연구개발·플랜트 부문에서 일할 이공계 전공자만 응시하는 것이다. 인문계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라지역 부문 서류 합격자는 18일과 11월 8일에 본다. HMAT은 언어이해, 논리판단, 자료해석, 정보추론, 공간지각,

인성검사, 에세이 등으로 구성됐다.

대림그룹도 9일 인·적성 검사를 한다. 대림산업 건설사업부와 석유화학사업부, 삼호, 대림I&S 등 4개 회사가 대림 그룹에 속한다.

지난 상반기 10만명이 넘게 응시한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는 12일로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 등 26개 계열사에서 동시에 치러지며,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SSAT는 지난 상반기 언어·수리·추리·상식 등 기존 4가지 평가 영역에 시각적 사고를 추가하고, 상식 영역에서 역사 관련 문항을 확대하는 식으로 개편됐다. SSAT는 오답을 선택하면 감점하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찍지 말고 넘어가야 한다.

18일은 이른바 금융공기업 'A매치 데이'이다.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이 모두 한 날에 필기시험을 본다. 금융공기업 사이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2000년대 중반부터 같은날 시험을 치르는 게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KT그룹과 효성그룹도 18일 인·적성 검사를 본다.

19일에는 SK그룹과 CJ그룹의 인·적성 검사 날짜가 겹친다. SK그룹의 SKCT는 인지역량, 실행역량, 직무수행, 심층역량 영역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상반기부터 한국사가 10문항 추가됐다. SKCT에서도 오답을 고르면 점수가 깎인다.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5일로 인·적성 검사를 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건설사 자본금 인정 범위, 판매용 신축건물로 확대

연말이면 자본금을 채우기 위해 사채 시장마저 찾았던 건설업체들이 한시름을 놓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건설업체의 실질 자산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해 29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본금은 건설업체의 등록요건 중 하나로,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면 건설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는 건설업체의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상가·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사무용 건물을 포함한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로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또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았을 때 지금은 이를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2년간 인정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자기 소유 건물을 임대해줄 때도 이 건물을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로또복권 (제17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4	5	11	12	24	28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629,701,860	8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0,533,391	43
3	5개 숫자일치				1,090,284	1,993
4	4개 숫자일치				50,000	93,731
5	3개 숫자일치				5,000	1,481,80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기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공인가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브랜드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大山프리모가발

2014 실전창업스쿨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중소기업청 국비지원 창업교육인 "2014 실전창업스쿨"은 자신의 능력과 감성을 창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설하였습니다.

여성여러분! 지금 신청하세요.

강좌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참수마감	교육장소
ICT를 활용한 전통의상소품 제작 창업교육	14.10.1~14.11.7 (25회, 총 100시간)	14:00~18:00 (4시간/일)	10. 8(수)	국제직업전문학교(신세계점)
ICT를 활용한 캘리그라피 창업교육	14.10.1~14.11.24 (36회, 총 109시간)	18:00~21:00 (3시간/일)	10. 8(수)	국제직업전문학교(조대점)
ICT를 활용한 LED아트물리워 제작 창업교육	14.10.20~14.11.20 (13회, 총 76시간)	12:00~18:00 (6시간/일)	10.27(월)	LED아트물리워 평생교육원 외 (광주역 앞)

교육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교육인원 | 각 과정별 25명
교육내용 | 각 과정별 실기교육, 창업이론 교육 및 창업 CEO 특강, 해외판로 및 마케팅 강의, 블로그 및 SNS 활용 교육
교육비 | 재료비(개인부담) 10만원(광주은행 053-107-393053 예금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전남)
수강신청 | (온라인접수) http://www.wbiz.or.kr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회원가입 후 실전창업스쿨 신청
특 전 | 교육 수료 시 수료증 교부, 창업전문가 컨설팅 기회 제공
상담전화 | 062-527-1612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전남센터, 062-352-0114 전통의상소품 제작교육, 062-223-6123 캘리그라피 창업교육, 062-575-6469 LED아트물리워 제작교육

주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전남센터 주최 중소기업청